

선한목자 예수수녀회
마리아의 동정 모성의 영적 여정
Don Luigi Razzano¹

월피정 자료

2017년 2월 4일 - 총본부-

들어가면서

제 9차 총회 준비를 위한 기도문이 사목적 모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저에게 요청한 주제도 이와 관련됩니다. 사목적 모성은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조건, 시대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영적 풍요함의 선물을 요청됩니다. 그러므로 이 피정이 단지 총회를 위한 숙고의 시간이 아니라 참으로 고유하고 풍요한 교회적인 의미를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성서 내용에서 시작하면서 동시에 신앙의 기초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성적 그리고 신학적 측면을 다룰 것입니다. 내용의 두 축은 크게 모성과 동정성입니다. 이 둘은 반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하고 참된 신앙의 성격인 이율 배반(antinomia)입니다.

여러 세기 동안 배타적으로 동정성에만 집중된 영성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런 영성의 발생으로 인해 개인적인 신심이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동체적이고 교회적 차원의 신심은 약화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동정성은 모성과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으로 하나가 없이 다른 하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이고 사목적인 풍요로움은 복음적 삶의 잠재력을 드러내고, 그 삶의 매력과 변모시키는 힘의 드라마를 보여주며, 교회적 삶의 기초들을 마련합니다. 지금부터 이에 이르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신적 모성을 받았다면, 따름과 경청, 간직함, 여러 시험들, 되새김의 여정을 통해 신적 모성에 도달합니다.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풍요롭고

¹ 아체라 교구 사제, 로마 Centro Aletti 협력자, 영신 수련 지도 신부.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여정은 마리아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길입니다.

만일 출산이 생물학적 행위라면, 모성 혹은 부성은 사람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존재는 단지 생명을 낳는 것만이 아니라 혼인적, 관계적인 측면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삶에서 다른 이의 현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성 혹은 부성은 개인적 차원에서 관계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관계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생물학적, 심리적 차원에서 가치가 있는 것은 영적 차원에서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완전한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성과 부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즉, 충만하고 참되게 자기 자신이 되는데 모성과 부성이 상응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성 생활은 부록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인간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목 현장에서 부딪히는 도전과 드라마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숙고의 핵심이 될 다음의 질문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내어 맡깁시다. “마리아는 어떻게 갓 태어나는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정도로 영적으로 풍요롭게 될 수 있었는가?”

마리아는 단지 개인적 풍요로움이 아니라 무엇보다 교회적 차원에서 풍요롭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리아가 걸어난 여정은 본당에서 사목적 삶, 교회적 삶을 메마르게 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영성들에 대한 치유책이 됩니다.

제 1 부

수세기 동안 영성, 신학, 교회론 분야에서 마리아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과는 달리 복음서들이 제공하는 마리아의 삶에 대한 정보는 빈약합니다. 바로 서간에서는 단 한 번 등장하며 그것도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여인에게서 태어났다.”(갈라 4,4)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심오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왜 정보가 빈약할까요? 신약성서의 저자들의 목적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기록상 감추어진 면을 성령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처럼 마리아는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참된 어머니로서 결코 자신의 모성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게 하면서 첫 번째로 성자를 그 다음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하게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내어 맡기면서 일하셨으며 침묵가운데 이를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조용하게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은총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피정을 시작하면서 고요하게 영적 모성/부성의 여정을 둘러싼 신비 안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시나이 산에서 자신이 들어가는 곳이 거룩한 땅임을 알고 신발을 벗은 모세와 같은 내적 자세를 우리도 지닙시다.

영적 모성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어나는가는 신비입니다. 신학은 모든 과학을 통해 이성적으로 이 과정을 결코 분명히 밝힐 수 없습니다. 과학은 생물학적 모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께 우리를 개방하는 만큼 우리 안에 그 신비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말할 내용은 신비의 심오함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 방법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영적 모성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리아를 교회적 모성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은 본성적 모성에서 시작합니다. 이 단계들(본성적 모성과 영적 모성)에서 사목적 모성 또는 부성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마리아의 여정을 따르고자 합니다.

모순적으로 마리아는 소녀일 때부터 동정의 축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정성은 자기에게만 해당하는 미혼의 동성이 아니라 영적인 혼인의 조건입니다. 덕에 있어서 동정성은 축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축성된 동정녀가

풍요한 열매를 맺도록 자신을 성령께 내어 맡기지 않으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메마르고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게 됩니다.

축성된 동정성은 성령께서 자신 안에서 충만하게 활동하시도록 분명하게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활동에 자유롭게 장을 열어주며, 성령의 완전한 현존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고유한 동정성의 기원, 의미, 목적이 있습니다.

성모 영보(루카 1,26-38) 이야기에서 천사와 마리아의 복음의 장면은 우선적으로 마리아와 자신 안에 계신 성령과의 상호적인 침묵의 대화입니다. 그러기에 이 안에서 숨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합니다. 더 높은 소리로 읽으면서 고유한 친밀감을 내면에서 느끼고 우리의 영과 하느님의 성령의 소리들이 울리도록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 장면에서 무엇이 마리아를 당황하게 합니까? 신비한 현상으로써 천사의 발현이 아니라 그를 향한 약속입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즉시 “신비적”, 맹목적,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설명을 요청합니다.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망설임 앞에 천사는 사촌 엘리사벳에게 이미 일어난 일을 그의 메시지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 증거 앞에서 마리아는 침묵하며 자신에게 그 신비가 일어나도록 내어 맡기며 결정적인 “예”로 응답합니다.

마리아는 성령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도록 맡깁니다. 이것이 참된 영적 모성에 있어서 첫 번째 자세입니다. 즉 성령께서 생명을 풍요롭게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도록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깊은 친밀함의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수동성이 근본입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우리의 영은 침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복 팔단의 참된 마음의 가난입니다.

시작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한 예기치 않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직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활동하십니다. 이는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긴 시간 동안 묵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삶의 무상의 시간에 신비로운 방법으로 오직 하느님 만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에 따라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근원적이고 유일하며 심오한 이 전망(그림)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 풍요한 생명력에 대한 그 전망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약속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이성이 유혹하도록 놓아두지 않고 그것을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후 일어나는 그것에 대한 이해는 이성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영적 지성의 열매입니다. 마리아는 성령께서 내면의 사건들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언제나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스며들 수 없는 단단한 껍질에 싸여 숨겨진 생명력 있는 과일 속과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주 매력적이며 마음을 끕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핵심이 자신을 감싸도록 놓아두며 그것을 실행할 때에는 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청하고, 간직하고 되새기면서 하느님의 뜻에 비추어서 사건들을 바라봅니다. 부활 때 베드로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었던” 요한의 행위와 같습니다. 마리아는 사건과 말씀을 함께 놓고 말씀 안에서 사건의 의미를 찾거나 사건 안에서 말씀의 의미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의미입니다.

동정성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성령께서 풍요롭게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역설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을 선택한 사람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미 거의 확고해진 삶의 선택들이 뒤 켜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완고한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유순하며, 변형이 가능하며, 부드러운 것입니다.

잉태에 대한 것이 영적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서는 생물학적, 육체적, 구체적, 역사적 방법으로 태아의 모습으로 마리아 안에 들어가십니다. 마리아가 점차적으로 적응해야만 했던 또 다른 역설이 이것입니다. 즉 하느님의 신비적 활동에 민감한 모성입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은 단지 추상적, 관상적, 비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느님께서서는 똑같은 살을 지니셨습니다.

1940년 철학자 샤르트르가 Trèves의 수용소에서 수감 중에 있을 때 쓴 아주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리아의 모성적 차원과 하느님의 인간적인 차원을 생각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동정 마리아, 요셉, 아기 예수가 있다.(...) 창백한 동정녀는 아기를 바라본다. 얼굴 위에 그려지는 것은 인간의 얼굴 속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걱정스러운 놀라움이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들, 자신의 육을 취한 사람으로 자기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를 구 개월 동안 뱃속에 품었고, 이제 젖을 먹이고, 그 젖이 하느님의 피가 될 것이다. 어떤 때는 유혹이 강해서 하느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

아기를 두 팔로 강하게 끌어안고, “나의 작은 아이여!”라고 외친다. 그러나 어떤 때는 금지된 채로 이렇게 생각한다. 하느님은 저기 멀리 계시고 종교적 공포로 인해 잃어버린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침묵하는 하느님,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아기. 모든 어머니들이 자신의 살붙이인 자식 앞에서 그렇게 매료되지만 자신에게서 태어난 이 새

생명 앞에서 유배된 뜻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으며 여러 생각들을 한다. 그렇지만 어떤 아기도 그렇게 잔인하게 참혹하게 자기의 어머니로부터 단절되지 않았다. 그 아기가 하느님이고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에 대해 부끄러움을 지니는 것은 큰 시험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들, 작은 아기, 하느님이라는 것을 느끼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자식을 바라보며 “이 하느님이 나의 아들이다. 이 거룩한 육신이 나의 살이다. 나에게서 태어났다. 나의 눈을 지니고, 아이의 입 모양은 나의 것이다. 나를 닮았다. 하느님이 나를 닮았다.” 어떤 여인도 운명적으로 자신의 하느님을 오직 자신을 위해서 지니지 못했다. 품에 안고 입맞출 수 있는 작은 하느님, 미소 짓고 숨쉬는 따뜻한 하느님, 만질 수 있고 살아 있는 하느님. 내가 화가라면 이 순간의 마리아를 온화하며 대담하게 표현하고 싶다. 무릎 위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그녀를 보고 웃고 있는 아기와 하느님의 작고 여린 살을 만지기 위해 손가락을 펴는 수줍음을 표현하고 싶다. 이것은 예수와 동정 마리아에 대한 전부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은 피를 지니고 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삶을 살며 둘은 참으로 하나의 몸이고 하나의 영입니다. 마리아는 하느님 안에 하느님은 마리아 안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 철학이 추구하는 신비적이고 완벽하고 불변한 하느님, 현실 밖에 사는 분을 낳은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지닌, 몸, 영혼, 영을 지닌 한 사람을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이 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마리아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본질적으로 일치로 이루어면서 서로 만납니다. 이 일치로 신학적으로 위격적 일치로 정의됩니다. 마리아의 자궁은 말씀이 신성-인성의 인격화 과정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마리아 안에서 말씀의 신성은 자신의 육화를 시작하고 말씀의 인성은 신성 안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모성은 실재적으로 참 하느님이신 사람을 잉태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른 설들에서 이야기하듯이 마리아가 말씀의 인성을 위해 그저 투자처럼 자신의 자궁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마리아 안에서 말씀이 인간의 형태로 자신의 신성 전체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어머니(*Theotókos*)의 의미입니다.

하느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사람이 되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마리아의 모성은 변명이 아니라 하느님의 참된 계시의 과정입니다. 그분은 실재로 빛으로 왔습니다. 마리아의 모성 덕분에 그 과정이 현실화 되고 실현됩니다. 성령은 마리아를 제외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생명을 낳는 활동에 참여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마리아 안에서 그리고 마리아로부터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할 때, 성령이 마리아와 상관없이 활동하신다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모성 덕분에 성령의 창조적 힘으로 인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한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참된 상호 침투(perikoresi)입니다. 상호침투적인 순환, 참된 시너지입니다. 이는 생물적 그리고 영적 상호협력입니다.

성령은 마리아를 내면으로부터 생명력을 지니게 합니다. 이는 보편적으로 사람의 임신이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다릅니다. 이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 성서는 “성령께서 네 위에 내려 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 감싸리라.”(루카 1,35)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행위가 활동의 대상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는 것은 빛, 안개, 그늘, 이슬의 자연적 현상들이나 벌이 꽃 위에 앉아서 꽃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꿀을 취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잉태, 죽음의 운명을 지닌 몸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결합의 주체가 아니라 부활의 몸이며, 부활의 법을 따릅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삶에 개입하신 것은 그저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지평을 바라보도록 촉구하는 초월적인 것, “거룩한”(루카 1,35) 것입니다. 성령은 마리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실재로 시작하셨고 그것을 잉태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새 인류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입니다.